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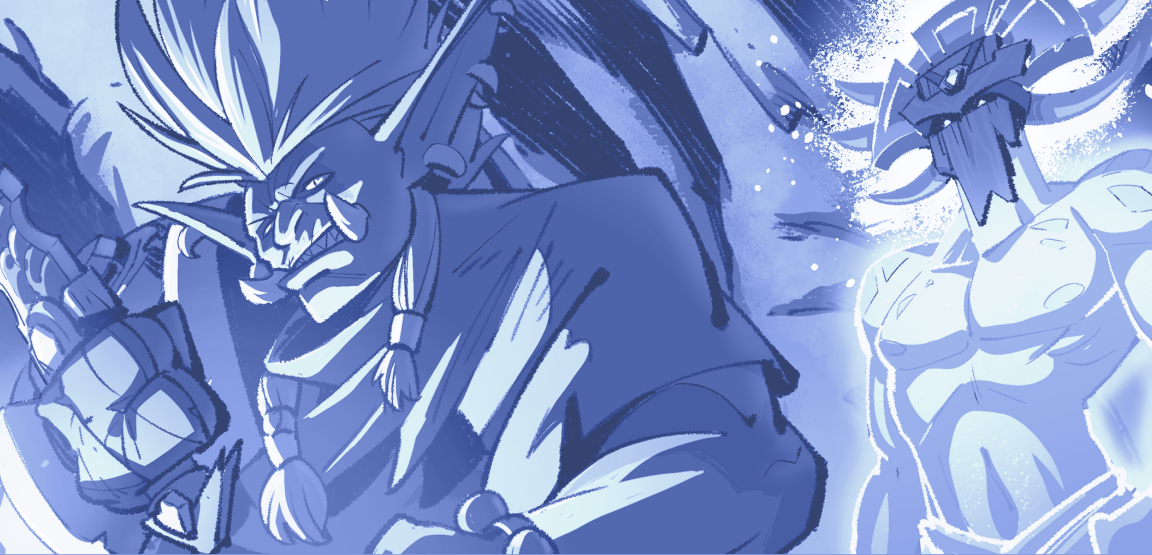
BIZZARD
ENTERTAINMENT

WORLD
WARCRAFT
MIDNIGHT

분노의 유산



ROBERT BROOKS MARCO DEL FORNO



분노의 유산

WORLD
WARCRAFT
MIDNIGHT

젊은 아마니 트롤 줄잔은 저물어 가는 동족의 유산과 고대의 힘이 내미는 위험한 유혹의 기로에 서 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냉혹한 현실과 충돌하는 가운데, 말라 크라스는 줄잔을 새로운 길로 이끈다. 이 길 위에서 줄잔은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갈라진 충성심, 아마니의 부흥이란 약속을 마주한다. 그러나 이 여정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작가 **DELILAH S. DAWSON** 표지 & 작화 **MARCO DEL FORNO**
채색 **MAURO GULMA** 캘리그래피 **ANDWORLD DESIGN**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선임 디렉터, 스토리 및 프랜차이즈 개발 **Venecia Duran**

선임 매니저, 집필 및 출간 **Matthew Cohan**

편집 감독 **Chloe Fraboni** 선임 편집자 **Megan Walker** 선임 브랜드 아티스트 **Sophie Erb**

제작 **Brianne Messina, Carlos Garcia Renta, Takayuki Shimbo, JT Torrea**

게임 팀 자문 **Raphael Ahad, Terran Gregory, Chris Metzen, Stacey Phillips, Korey Regan**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Blizzard.com

© 2026 Blizzard Entertainment, Inc. 블리자드 및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출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이 만화는 픽션입니다. 이름과 캐릭터,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창작물이거나 픽션으로 사용된 소재이며, 생사를 막론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저자 또는 제3자 웹사이트 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동생아, 아마니는
어떤 존재지?

두려움을
모르지!

동생아, 아마니는
어떤 존재지?

강인하지!

줄아만, 수년 전



동생아, 아마니는
어떤 존재지?

그럼 넌 왜...

아마니는 승리하는
자들이야!



...2등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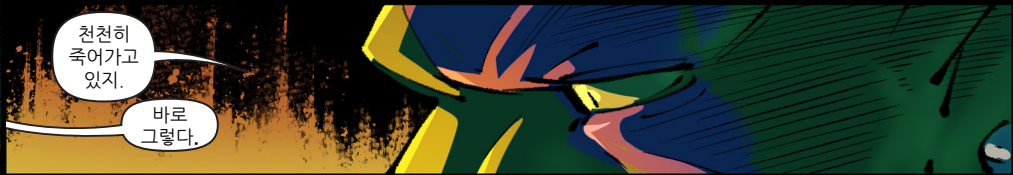
전략이야!



다음 수를 미리
알려 줄 순 없잖아!

이번엔 누나
차례야...

...아마니는
어떤 존재지?



천천히
죽어가고
있지.

바로
그렇다.

아마니 해안 인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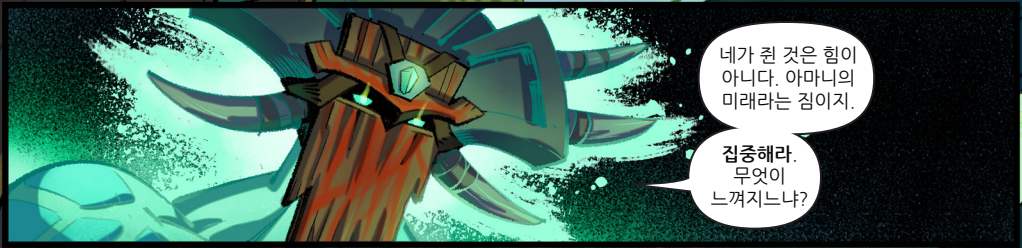


네가 살아남을
길을 제시하지
않는 한은 그럴
거다, 꼬마야.

이것으로
말이지.



꼬마라고...
...이 손에 아마니
최강의 힘이
있는데?



네가 원 것은 힘이
아니다. 아마니의
미래라는 짐이지.

집중해라.
무엇이
느껴지느냐?



느껴진다... 내 영혼을
움켜쥐는 무언가가.

대가 없는 힘은
아니겠군.

그렇다.



네 누나가 가고자
하는 길을 떠올려
봐라.

홀륭하게, 충직하게,
명예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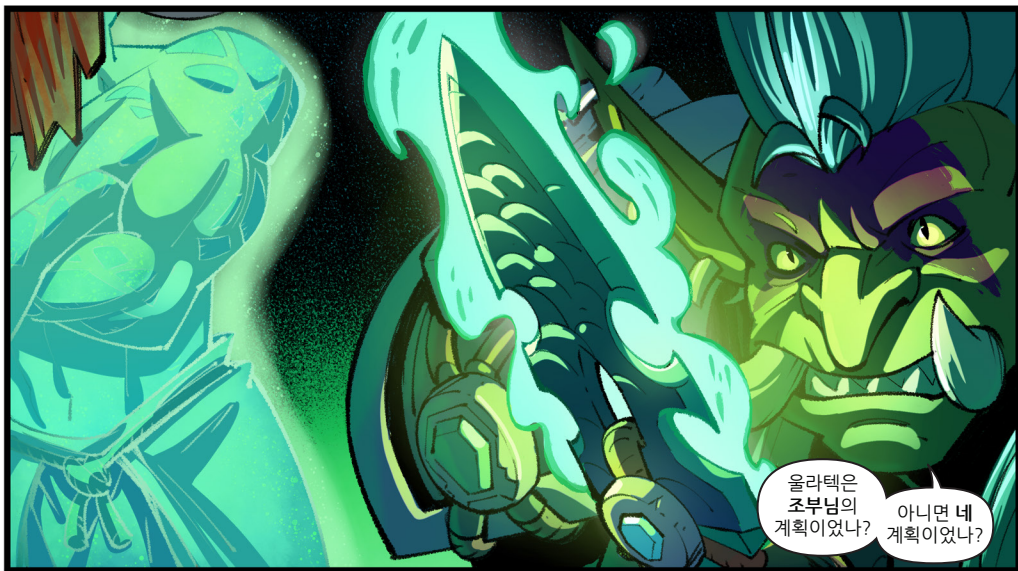
--너희 모두를
갯데미로
만들겠지.



멸종한 우리 종족을...
기리는 제단은...
아름답겠지.

그리고 금세 잊힐
것이야.





“그 당시엔 우리
둘 다 아는 게
거의 없었다.

“막연하게 숨겨진 힘이
봉인되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아마니 제국의
태동기에 봉인된 힘
말이다.

“무시무시한 괴물.
거스를 수 없는 힘.

“그 존재가 휘감은
어둠은 태양마저 통째로
삼킬 듯했다.

“올라택은 수 세대
동안 아마니 제국을
수호했다.

“아마니는 그 힘이 다시
필요해질 날까지 올라택을
봉인했지.



“호드와 최후의 전투를 벌이기 전, 나는 줄진을 찾아갔다.”

줄진. 때가 됐습니다.

올라텍이 우리의 새로운 제국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줄진은 도움 없이 나서길 거부했다.”

“이 어둠의 힘을 길들일 권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지.”



“잠깐 늦어진다고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도 아탈아만에서의 승부수에 몸을 싣었다.”



“그래서 줄진은 아탈아만으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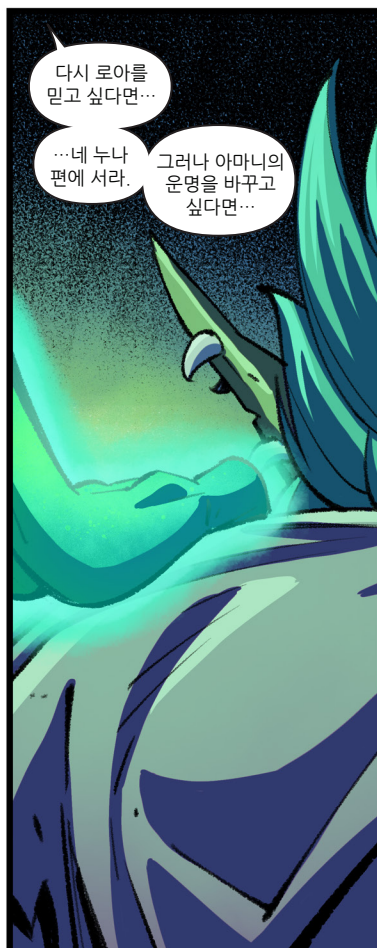
“로아에게 참된 축복을 받기 위해.”

“하세이가 되기 위해.”



조부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다시 설명해.

전설이 되어... 눈을 감았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얻는 승리는
없다.



준비는
됐느냐?

조부님이 시작한
일을 끝낼 각오
말인가?

그렇다.



“네겐 힘이 있다.
두려움도 없지.”

“그리고
열쇠도 있다.”



그럼 아마니는
어떤 존재야,
누나?

함께일 때 훨씬
강하지!



그게 누나가
생각하는 답이야?

그게
사실이야!



